

집합주의 문화가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 지각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차 민 정	박 소 영	송 현 주 [†]	노 연 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BK21 뇌기반 심리학 연구단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집합주의적 성향이 청년들이 지각하는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었고,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집합주의적 성향이 취업불안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구직효능감, 자존감 그리고 상향·하향 사회비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 1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재한 상위권 A 대학과 중위권 B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79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취업불안이 높고 취업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효능감과 자존감이 집합주의적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2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C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1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상향 사회비교는 집합주의적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향 사회비교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집합주의 문화, 청년 취업불안, 구직효능감, 자존감, 상향·하향 사회비교

* 이 논문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지원에 따라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E-mail : hsong@yonsei.ac.kr

청년의 과도한 실업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실업 사태로 인한 시위는 물론, 눈 깜짝할 새에 확산됐던 중동의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살펴보면 높은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청년 실업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青年失業解消特別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청년 실업(青年失業)이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意思)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실업의 대상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실업률은 안정적인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체감 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년 10월까지 청년 실업자는 32만4000명에 불과한 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110만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실상의 실업자’란 현재 실업자는 물론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등 본인의 의사나 노동능력에 반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사실상 실업자를 반영할 경우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2011년 1~10월) 7.7%의 세 배인 22.1%에 육박한다(경향신문, 2011. 12. 12). 이렇듯

청년실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점차 취업으로의 관문이 좁아짐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한 열기도 청년들의 실업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 실업 연구 동향

실업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업으로 인해 청년들은 분노, 좌절, 신체화 장애,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자립능력의 저하, 가족관계에서의 상호작용 회피,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김재갑, 김은미, 이선이, 최우영, 1998). 이렇듯 실업은 청년 실업자의 인성에 영향을 주며(Eisenberg & Lazarsfeld, 1938),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성인의 지위나 역할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 심각할 수 있다. 성인기의 정체성은 독립된 직업이나 고용상태를 획득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실업은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Donovan & Oddy, 1982). 그리고 실업 경험은 우울증을 유발하고(Feather & O'Brien, 1986; Fryer & Payne, 1986; Warr & Jackson, 1984), 개인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eather, 1989; Sheeran & McCarthy, 1990; Winefield & Tiggeman, 1985).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청년실업의 영향을 알아본 국내 중단 연구에 따르면 취업에 성공한 집단은 취업 전 시점에 비해 우울·불안 수준이 낮아졌으며 취업성공 및 실업 경험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쳤다(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또한, 미취업과 비정규직 집단은 정규

직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나타냈으며, 자존감과 구직효능감에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노연희, 김명언, 장재윤, 김민수, 2004).

이렇듯 실업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주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많이 진행 되어왔지만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처해있을 때의 느끼는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극소수이다(김미경, 2008).

취업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

취업불안은 심화시키는 요인은 크게 인구통계 요인, 개인특성 요인, 그리고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인구통계 요인부터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취업불안에 기여하는 변인들은 경제적 수준, 대학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시간과 같은 변인들을 들 수 있다. 지각된 경제적 중압감이 실업상황 중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Creed & Macintyre, 2001; Feather, 1989; Vinokur & Schul, 2002), 대학에서 갓 졸업을 해 실업상태에 놓인 지 얼마 안 된 집단과 실업상태에 놓인 지 상대적으로 오래된 집단 간의 취업불안을 지각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McKee-Ryan, Song, Wanberg, & Kinicki, 2005).

개인특성 요인 중에는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는 변인으로 직업역할 중심성(work-role centrality)을 들 수 있다. 직업역할 중심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에 있어 일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실업상태에서 직업역할 중심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반비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Ashforth, 2001; Jackson, Stafford, Banks, & Warr,

1983; Kinicki, 1989). 개인의 실업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역시 실업상황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끼치는데, 대처방식을 분류하는데에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안녕감, 시간의 구조화를 꼽을 수 있다(McKee-Ryan & Kinicki, 2002). 실업상황에 놓여진 원인을 귀인하는 방식에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달라지기도 한다. Prussia, Kinicki, 그리고 Bracker(1993)에 따르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내부귀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물론 추후에 재취업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실업상태에서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Kinicki, Prussia, & McKee-Ryan, 2000), 그리고 그와 반대선상에 놓여있는 사회적 관계의 악화를 들 수 있다(Vinokur, Price, & Caplan, 1996; Vinokur & van Ryn, 1993; Abbey, Abramis, & Caplan, 1985).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는 실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Wethington & Kessler, 1986).

취업관련 불안 및 정신건강의 영향요인으로서 집합주의 문화

최근에 문화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왔다. 행복의 문화차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에 따라서 행복감을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Diener, Oishi, & Lucas, 2003; Lu & Gimour, 2004; Uchida, Norasakkunkit, & Kitayama, 2004). 하지만 극소수의 연구(e.g., Martella & Maass, 2000)를 제외하고는 문화가 취업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Martella와 Maass(2000)는 그들의 연구에서 문화에 따라서 실업상태에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남북 이태리의 문화의 차이가 청년들의 실업상태와 비실업상태에서의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합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남부지역에서는 실업상태와 비실업상태에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북부보다 작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남부와 북부 모두 실업상태에서 비실업상태보다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그 차이가 집합주의 문화인 남쪽에서 더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집합주의의 사회적 유대감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실패에 개인적 책임을 매우 느끼기 때문에, 성공할 시에는 큰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나, 실패했을 때는 집합주의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합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끈끈한 사회적 유대가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보통 남부 이태리는 북부보다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더 용인되고 덜 비난받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Martella와 Maass(2000)의 연구는 실업의 용인 정도가 실업률의 차이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집합주의에 따른 결과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차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려해 볼 때, 또 다른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집합주의의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연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Suh, 2007),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동양문화권 사람들이 자기 평가를 할 때, 내적 기준이 아닌 외적 기준, 즉 사회적 시선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Tafarodi, Lo, Yamaguchi, Lee, & Katsura, 2004). 집합주의 문화권에서 보이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 신경을 쓰는 모습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것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적, 사회적 자기평가는 우울감과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Butler, Hokanson, & Flynn, 1994; Harter, Stocker, & Robinson, 1996; Kernis & Goldman, 2003). 특히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체면문화(face culture)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즉,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이 평가하게 하며 공적인 모습이 매우 중시된다(Heine & Lehman, 1999; Kim, Cohen, & Au,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성향의 차이가 청년 실업에 대한 불안 및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년실업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불안수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집합주의적 사고를 가진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타인의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여 실업에 대한 불안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가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과 취업 관련 부정적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

것이다.

집합주의, 취업과 관련된 불안 및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자존감과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

더불어, 문화권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집합주의 문화권 국가인 개인주의 문화권 국가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Schmitt & Allik, 2005; Twenge & Crocker, 2002). 즉, 동양문화권 사람들은 서양문화권 사람들에 비해 자존감을 낮게 보고 하며(Schmitt & Allik, 2005), 비현실적인 긍정적 자아상을 갖지 않고(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자신의 장점을 타인에게 자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Heine, Kitayama, & Hamamura, 2007). 이 같은 경향성은 개인에게 문화성향을 접화시키는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Ross, Xun, 그리고 Wilson(2002)은 영어보다 중국어를 쓰게 한 중국인들이 더욱 집합주의적인 사고와 낮은 자존감을 보고 한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자기효능감은 자기개념(self-concept)의 일종이기 때문에(Pajares & Miller, 1994),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개인에 비해 집합주의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 더욱 취업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즉 구직효능감을 낮게 보고한다(Mau,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구직효능감이 문화적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구직효능감은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및 취업 관련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자존감은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및 취업 관련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집합주의, 취업과 관련된 불안 및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상향·하향 사회비교의 매개효과

기존 문헌에 의하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며(White & Lehman, 2005),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잘하지 못했다더라도 상대적으로 남보다 나은 수행을 보일 때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Lyubomirsky & Ross, 1997). 또한 이렇게 맥락-의존적인 동양인들의 모습은 내가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보일지를 매우 의식하기 때문에 낮은 행복감을 보인다(Suh, 2007). 이렇기 때문에 집합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주로 하는 사회비교의 종류가 다르다. 자기발전(self-improvement) 욕구가 있는 개인은 자신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상향비교(Buunk, Collins, Taylor, VanYperen, & Dakof, 1990)를 하는 반면,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하향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Wood, Taylor, & Lichtman 1985).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남들보다 잘하는지를 알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즉 자기발전(self-improvement)이 중요하므로 주로 상향비교를 많이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주된 동기이므로 하향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White & Lehman, 2005). 즉, 상대적으로 집합주의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상향비교 과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예측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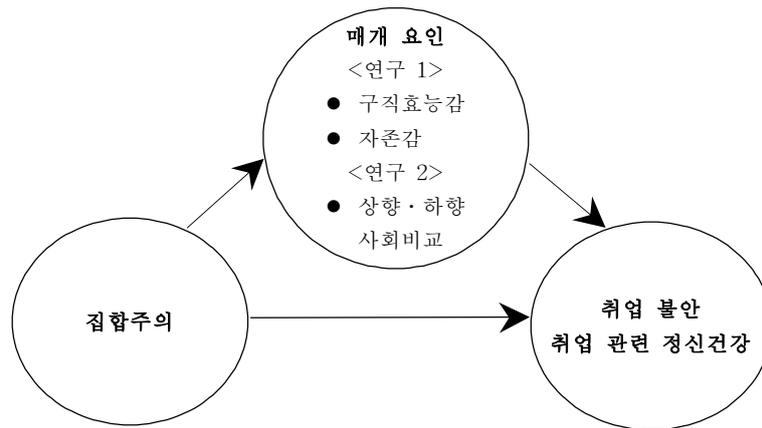


그림 1. 집합주의, 매개요인 및 취업불안 간의 관계 (가설들의 통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향 사회비교의 성향이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상향 사회비교 성향은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및 취업 관련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1의 주목적은 집합주의적 성향이 취업불안의 지각과 취업관련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구직효능감,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2의 주목적은 집합주의적 성향이 취업불안 및 취업관련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상향 사회비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선행연구 결과 하향 사회비교 보다 상향 사회비교가 집합주의 문화와 관련되므로(White & Lehman, 2005), 본 연구에서는 상향 사회비교의 매개효과에 관해서만 가설 검증하였고, 하향 사회비교의 매개효과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내

용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을 비롯한 부정적 취업관련 정신건강이 높아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존감과 구직효능감이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앞선 가설들을 검증하기 전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학교가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면, 일반적으로 여성 구직자들에 비해 남성 구직자들이 취업행동에 더욱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명자와 김형진(2004)에 따르면, 여자보다 남자 대학생일 때 취업준비와 계획수준이 높았으며, 취업정보도 높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구조적인 측면도 여성 구직자로 하여금 취업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민식(2007)은 1986년부터 2004년까지 남녀 간 고용구조의 변화와 남녀임금격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취업 증가율은 상승하였으나 성별 간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밝혀내, 여전히 여성이 구직활동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장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실직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재취업 제한요건을 더 많이 지각하였다(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유태웅, 한태영, 황종오, 2005). 이에 따라, 성별은 취업과 관련된 불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는 상위권 대학교에 비해 중위권 대학교 출신 구직자에게 취업 제한요건이 더 크다는 일반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취업불안을 달리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방 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한 상위권 A 대학과 중위권 B 대학에서 19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179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해당 대학과 학생들에게 연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으며, 설문지를 배부하고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설문 참가자들의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남자는 69명(36.9%), 여자는 118명(63.1)로 나타났고, 단대분포는 총 5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문과대학은 74명(39.8%), 상경대학은 37명(19.9%), 공과대학은 24명(12.9%), 사회과학대학은 19명(10.2%) 그리고 기타는 32명(17.2%)이었다. 학

년분포는 1학년이 38명(20.4%), 2학년이 46명(24.7%), 3학년이 58명(31.2%) 그리고 4학년이 44명(23.7%)이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 형태로서 청년들의 문화성향과 취업불안, 취업 정신건강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성향

본 연구의 척도는 Singelis(1994)가 개발하고 제작한 자기해석 척도(Self-Constrain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 12개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5=약간 그렇다, 6=그렇다, 7=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744, .729이었다. 본 연구 1에서는 각 개인의 집합주의 점수와 개인주의 점수를 합산하여 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Holland, Roeder, van Baaren, Brandt, & Hannover, 2004). 즉, 문화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집합주의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 '나는 내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개인주의 문항의 예로는 '나는 여러 방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다는 것을 즐긴다', '타인과 구분되는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은 나에게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취업불안

본 연구의 척도는 불안에 관한 문항으로 Spielberger, Gorsuch 그리고 Lushence(1970)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는 40문항으로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개 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 중 상태불안 검사를 수정하여 그 중 안면 타당도가 높은 13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본래 기질적으로 타고난 특성 불안보다는 처해진 환경을 주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태불안이 더 본 연구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1에서의 취업불안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8이다. 문항의 예로는 '취업과 관련하여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있다', '취업과 관련하여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취업 정신건강

취업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Goldberg(1972)에 의하여 개발되고 Murphy와 Athanassou(1999)가 제작한 일반정신건강질문지(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는 지난 한달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의 문제점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인(2001)이 한국판으로 제작한 KGHQ-30의 30문항 중 12문항을 취업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까지 7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과 사회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1에서의 취업 정신건강 검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45이다. 문항의 예로는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느꼈습니까?', '취업과 관련하여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많이 설치곤 합니까?'와 같은 문항이 있다.

구직효능감

본 연구는 구직활동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Michigan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제작한 JOBS II Survey (Vinokur & Price, 1991)의 구직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구직효능감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1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익한 취업정보를 구하는데 자신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1에서의 자존감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1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교와 성별이 취업불안 등 주요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과 취업불안 및 취업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직효능감과 자존감이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절차를 사용하고 Sobel(1982)의 방법으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학교, 성별이 취업과 관련된 불안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먼저, 학교가 취업과 관련된 불안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위권 A학교, 중위권 B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1). 취업불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권 A학교는 중위권 B학교에 비해 취업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166) = 3.450, p < .001$). 또한, 정신건강의 경우도 상위권 A학교가 중위권 B학교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173) = 2.610, p < .01$). 취업 정신건강 점수는 낮을수록 상태가 양호한 것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구직효능감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상위권 A학교가 중위권 B학교에 비해 구직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74) = -2.133, p < .05$). 반면, 집합주의 성향($t(172) = .007, n.s.$)과 자존감($t(174) = -.250, n.s.$)은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학교가 주요 변인에 미치는 영향 (t-test 결과)

변인	학교	N	M	SD	t	p
취업불안	중위권대	75	4.042	.945	3.450	.001
	상위권대	93	3.545	.938		
정신건강	중위권대	82	3.607	.775	2.610	.010
	상위권대	93	3.275	.891		
집합주의	중위권대	82	-.090	.900	.007	.253
	상위권대	92	-.092	.986		
구직효능감	중위권대	83	4.056	1.061	-2.133	.034
	상위권대	93	4.401	1.081		
자존감	중위권대	83	4.957	.840	-.250	.803
	상위권대	93	4.989	.888		

표 2. 성별이 주요 변인에 미치는 영향(t-test 결과)

변인	성별	N	M	SD	t	p
취업불안	남자	59	3.605	.764	-1.620	.107
	여자	109	3.855	1.041		
정신건강	남자	61	3.228	.862	-2.325	.021
	여자	114	3.539	.831		
집합주의	남자	62	.052	.921	1.497	.136
	여자	112	-.170	.951		
구직효능감	남자	62	4.457	1.065	1.990	.048
	여자	114	4.120	1.078		
자존감	남자	62	4.992	.893	.204	.838
	여자	114	4.964	.851		

다음으로, 성별이 취업과 관련된 불안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위권 A학교, 중위권 B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2). 성별에 따라 취업불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166) = -1.620, n.s.$). 하지만 정신건강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173) = -2.325, p < .05$). 또한, 구직효능감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구직효능감이 높았다($t(174) = 1.990, p < .05$). 즉,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안 좋은 취업 정신건강 양상을 나타냈으며, 구직효능

감도 낮았다. 반면, 집합주의 성향($t(172) = 1.497, n.s.$)과 자존감 ($t(174) = .204, n.s.$)은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이 취업과 관련된 불안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과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3). 먼저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과 취업불안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량

변인	1	2	3	4
1. 구직효능감				
2. 자존감	.457***			
3. 집합주의	-.298***	-.332***		
4. 취업불안	-.531***	-.545***	.174*	
5. 정신건강	-.557***	-.750***	.155*	.654***

* $p < .05$. ** $p < .01$. *** $p < .001$.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74, p < .05$). 또한 개인의 집합주의 성향과 취업 정신건강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55, p < .05$). 즉,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을 더 높게 지각하며 취업 정신건강 역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집합주의 성향과 구직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298, p < .001$), 자존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r = -.332, p < .001$),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과 자존감이 낮아짐을 나타냈다.

집합주의 성향과 매개변인이 취업과 관련된 불안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통계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집합주의 성향이 취업불안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직효능감과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모형에 의하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야 하고,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세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비로소 매개분석이 가능하다. 기본 조건이 만족된 후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되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집합주의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직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는가를 검증해 보았으며, 학기,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회귀분석 1단계에 투입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였다(표 4). 먼저,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낮게 나타났고($\beta = -.362, p < .001$), 다음으로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은 낮게 나타났다($\beta = -.524, p < .001$). 마지막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게 나타났다($\beta = .241, p < .01$).

표 4. 집합주의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

예측변인(A)	매개변인(B)	종속변인(C)	분석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집합주의	구직효능감	취업불안	1	A→B	-.362***
			2	B→C (A통제)	-.524***
			3	A→C	.241**
			4	A→C (B통제)	.059
집합주의	구직효능감	취업 정신건강	1	A→B	-.362***
			2	B→C (A통제)	-.536***
			3	A→C	.210**
			4	A→C (B통제)	.015

* $p < .05$, ** $p < .01$, *** $p < .001$

집합주의 성향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구직효능감을 통제한 후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59, n.s.$). 따라서 구직효능감이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또한, Sobel(1982)의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4.320, p < .001$).

같은 방법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취업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직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 검증해 보았다(표 4). 먼저,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beta = -.362, p < .001$). 다음으로,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36, p < .001$). 마지막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0, p < .01$). 집합주의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구직효능감을 통제한 후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15, n.s.$). 따라서 구직효능감이 집합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Sobel(1982)의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4.400, p < .001$).

같은 방법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존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 검증해 보았다(표 5). 먼저,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다($\beta = -.345, p < .001$). 다음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은 낮게 나타났으며($\beta = -.521, p < .001$). 마지막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게 나타났다($\beta = .241, p < .01$). 집합주의 성향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자존감을 통제한 후 유의미하지 않으므로써($\beta = .063, n.s.$), 자존감이 집합주의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또한, Sobel(1982)의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4.110, p < .001$).

마지막으로 동일한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집합주의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존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 검증해 보았다(표 5). 먼저, 집합주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다($\beta = -.345, p < .001$). 다음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은 양

표 5. 집합주의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존감의 매개효과

예측변인(A)	매개변인(B)	종속변인(C)	분석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집합주의	자존감	취업불안	1	A→B	-.345***
			2	B→C (A통제)	-.521***
			3	A→C	.241**
			4	A→C (B통제)	.063
집합주의	자존감	취업 정신건강	1	A→B	-.345***
			2	B→C (A통제)	-.764***
			3	A→C	.210**
			4	A→C (B통제)	-.045

* $p < .05$, ** $p < .01$, *** $p < .001$

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64, p < .001$). 마지막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0, p < .01$). 집합주의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존감을 통제 한 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eta = -.045, n.s.$), 자존감이 집합주의 성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Sobel(1982)의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4.644, p < .001$).

연구 2

연구 1에서는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고 취업관련 정신건강이 열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존감과 구직효능감이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자존감과 구직효능감이 아닌, 상향·하향 사회비교가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상위권에 속하는 C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총 130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해당 대학과 학생들에게 연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으며,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한 다음,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총 118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참가자들의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남자는 45명(38.5%), 여자는 72명(61.5%)으로 나타났다고, 단대분포는 총 5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문과대학은 39명(33.3%), 공과대학은 19명(16.2%), 상경대학은 17명(14.5%), 사회과학대학은 11명(9.4%) 그리고 기타는 31명(26.5%)이었다. 학년분포는 1학년이 34명(29.1%), 2학년이 38명(32.5%), 3학년이 18명(15.4%) 그리고 4학년이 27명(23.1%)이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 형태로서 청년들의 문화성향과 취업불안, 취업 정신건강, 구직효능감, 자존감, 상향/하향 사회비교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성향, 취업불안, 취업 정신건강, 구직효능감, 자존감

본 연구의 척도는 앞선 연구 1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2에서의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696, .707이었다. 또한 취업불안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8, 취업 정신건강은 .887, 구직효능감은 .874 그리고 자존감은 .874이었다.

상향·하향 사회비교

상향·하향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Heidrich와 Ryff(1993)가 노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상향·하향 사회비교와의 관련성을 연구하

기 위해 고안한 상향·하향 사회비교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항 중 각각 1문항을 취업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향·하향 사회비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향·하향 사회비교의 문항은 ‘나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자주 비교한다’, ‘나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자주 비교한다’이다.

결 과

상향·하향 사회비교가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연구 2에서도 연구 1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1과 동일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동일하게 구직효능감과 자존감이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및 취업 관련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따라서 앞선 가설 1, 가설 2-1, 가설 2-2가 다시 한 번 지지되었다.

집합주의 성향과 상향·하향 사회비교가 취업과 관련된 불안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집합주의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향 사회비교가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는가를 검증해 보았으며, 성별, 나이, 학기, 그리고 주관적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회귀분석 1단계에 투입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였다(표 8). 먼저,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상향 사회비교가 높게 나타났고($\beta = .259, p < .01$), 다음으로 상향 사회비교가 높을수록 취업불안은 높게 나타났고($\beta = .245, p < .01$). 마지막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게 나타났고($\beta = .274, p < .01$). 집합주의 성향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상향 사회비교를 통제한 후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통제

표 6. 집합주의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

예측변인(A)	매개변인(B)	종속변인(C)	분석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집합주의	구직효능감	취업불안	1	A→B	-.358***
			2	B→C (A통제)	-.445***
			3	A→C	.274**
			4	A→C (B통제)	.115
집합주의	구직효능감	취업 정신건강	1	A→B	-.358***
			2	B→C (A통제)	-.510***
			3	A→C	.330***
			4	A→C (B통제)	.148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집합주의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존감의 매개효과

예측변인(A)	매개변인(B)	종속변인(C)	분석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집합주의	자존감	취업불안	1	A→B	-.427***
			2	B→C (A통제)	-.648***
			3	A→C	.274**
			4	A→C (B통제)	-.003
집합주의	자존감	취업 정신건강	1	A→B	-.427***
			2	B→C (A통제)	-.713***
			3	A→C	.330***
			4	A→C (B통제)	.025

* $p < .05$, ** $p < .01$, *** $p < .001$

하기 전보다 회귀계수 크기가 줄어 상향 사회 비교는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0, p < .05$). 또한, Sobel(1982)의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1.981, p < .05$).

같은 방법으로 집합주의가 취업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향 사회비교가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는가를 검증해 보았다(표 7).

먼저,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상향 사회비교가 높게 나타났고($\beta = .259, p < .01$), 다음으로 상향 사회비교가 높을수록 취업 정신건강은 높게 나타났다($\beta = .249, p < .01$). 마지막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 정신건강이 높게 나타났다($\beta = .330, p < .001$). 집합주의 성향이 취업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향 사회비교를 통제한 후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통제하기 전보다 회귀계수 크기가 줄

표 8. 집합주의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향 사회비교의 매개효과

예측변인(A)	매개변인(B)	종속변인(C)	분석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집합주의	상향 사회비교	취업불안	1	A→B	.259**
			2	B→C (A통제)	.245**
			3	A→C	.274**
			4	A→C (B통제)	.210*
집합주의	상향 사회비교	취업 정신건강	1	A→B	.259**
			2	B→C (A통제)	.249**
			3	A→C	.330***
			4	A→C (B통제)	.266**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집합주의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하향 사회비교의 매개효과

예측변인(A)	매개변인(B)	종속변인(C)	분석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집합주의	하향 사회비교	취업불안	1	A→B	.212*
			2	B→C (A통제)	.083
			3	A→C	.274**
			4	A→C (B통제)	.256**
집합주의	하향 사회비교	취업 정신건강	1	A→B	.212*
			2	B→C (A통제)	.041
			3	A→C	.330***
			4	A→C (B통제)	.321***

* $p < .05$, ** $p < .01$, *** $p < .001$

어($\beta = .266, p < .01$), 상향 사회비교는 집합주의와 취업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Sobel(1982)의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에도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2.019, p < .05$). 따라서 상향 사회비교 성향이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및 취업 관련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집합주의가 취업불안 및 취업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하향 사회비교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았다(표 9).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하향 사회비교의 경우에는 상향 사회비교 결과와는 달리 매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경향성의 차이가 청년 실업에 대한 불안 및 취업 관련 정신건강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학교, 성별이 취업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았다. 또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았으며, 이와 함께 구직효능감 및 자존감이 집합주의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상향·하향 사회비교가 집합주의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로부터 밝혀진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위권 대학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학생들보다 취업불안이 높고 취업에 대한 정신건강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효능감에서도 중위권 대학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낮았다. 취업 불안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취업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열악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효능감 또한 낮았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에 대한 불안이 높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

는 취업의 남녀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김숙자, 1990;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유태웅, 한태영, 황종오, 2005;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 둘째, 집합주의적인 문화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취업불안이 높고 취업 정신건강이 덜 양호하고, 구직효능감과 자존감이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구직효능감과 자존감이 집합주의적 성향과 취업불안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상향비교는 집합주의적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향 사회비교는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본 연구와 관련해서 실업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중 하나이다. 본 인터뷰는 C대학교 학생 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3명이 아래와 같은 남의 시선을 의식한 답변을 하였다.

(...중략)면접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취업이 안 될 거 같다, 안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태네요? 그럼 그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피면접자: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남들 보기 부끄러운 것. 작년에 취업이 안 된 것은 아무도 모르게 지원을 한 것이라서 그렇진 않은데, 이제는 졸업할 해야 하는데 취업이 안 된 상태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친구 중에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졸업을 한 애가 2명이 있는데, 그 중 한명은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 사회의 시선 같은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제 친구가 설날에 친척집에 갔는데 다들 자기를 위로하려 했대요. 하지만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놀고 싶어서 졸업한 것

이었는데. 아무도 그런 시선으로 봐주지 않았대요. 보면서 한국사회의 씩씩함을 느꼈달까요?

인터뷰에 따르면, 취업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취업에 실패할 경우에 수반되는 부끄러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인터뷰에서는 취업을 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로 회사의 명성을 꼽는 등 사회적인 시선과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타인의 기준에서 자신을 더 많이 평가할 때, 타인이 보기에 괜찮게 생각하는 직장에 가지 못한다면 더 불행함을 느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취업불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인터뷰 결과는 집합주의와 취업불안 및 취업 관련 정신건강의 관계를 상향 사회비교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 청년실업 불안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변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적 상황이 청년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 기존 국내 문헌들은 상당수 있으나(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노연희, 장재윤, 2005), 청년 실업불안과 문화적 성향을 연결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별적인 문화적 성향이 실업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집합주의적인 사고가 취업을 앞둔 청년기 성인의 취업 불안 및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집합주의적 문화적 성향이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개인의 구직효능감

과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구직효능감과 자존감을 낮게 지각하게 되고, 이것이 취업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상향 사회비교가 집합주의적 문화적 성향이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그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취업불안을 높게 지각하기도 하지만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상향 사회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상향 사회비교가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화적 성향의 차이가 청년 실업에 대한 불안 및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청년실업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불안수준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구직효능감, 자존감 및 상향 사회비교가 집합주의적 문화적 성향과 취업불안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의 원인이 개인차 및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집합주의 국가로 분류되며(Sasaki & Kim, 2011),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강한 체면문화에 속한다는 사실(Kim, Cohen, & Au, 2010)은 우리나라의 청년층이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취업과 관련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와 더불어, 청년층이 취업하기 전까지 경험할 수 있는 불안과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며 이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문화적 성향

과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과제

끝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화 가능성이다.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로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문화적 성향이 취업불안에 영향을 주는지 장기적으로 관찰한다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설이 좀 더 명확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 변인의 부재이다. 과거 문헌에 따르면 집합주의 문화권 국가들은 사회적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Diener, Suh, Smith, & Shao, 1995), 근본적으로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Markus & Kitayama, 1991; Shweder & Bourne, 1984; Triandis, 1988)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대처기술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Martella와 Mass (2000)의 연구에서도 문화권에 따라 실업상태에서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상이했던 이유로 사회적 지지를 꼽고 있을 정도로 문화권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다르다. 더불어 조직 구성원의 문화적 가치가 집합주의에 가까울수록 조직공정성 지각 수준과 상관없이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김경민, 박동건, 2011).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집합주의적·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개인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실제로 얼마만큼의 사회적 지지

를 받는다고 느끼는지 정도를 추가해서 진행되어야 하겠다. 즉, 사회적 지지의 욕구가 높은 개인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에는 청년 실업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안을 덜 느낄 것이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다면 그만큼 불안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욕구가 높지 않은 개인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취업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 변인들이 개인적 특성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구직효능감, 그리고 상향·하향 사회비교라는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는 변인만을 사용해 문화적 성향과 취업불안 및 정신건강에서의 매개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주관적으로 지각된 경제적 수준, 그리고 개인의 출생지와 같은 환경적 변인을 추가했다면 더욱 문화적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준은 문화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부의 수준에 따라 국가의 문화적 성향이 개인주의적으로 편향된다(Inglehart & Welzel, 2005; Welzel, Inglehart & Klingemann, 2003). 따라서 객관적 경제적 수준 혹은 지각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집합주의 문화권에서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태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것은 청년들이 취업불안을 느끼는 원인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문화적 성향과 취업불안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직업가치가 외부적인지 내부적인지도 취업불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개인의 직업가치가 연봉, 회사의 사회적 명성 등과 같은 외부적인 것에 속해있는지, 아니면 일이 주는 즐거움, 자기 발전 가능성과 같은 내부적인 것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취업불안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1년 12월 12일).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2.1% 달해.' 경향신문사.
- 김경민, 박동건 (2011).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4), 395-413.
- 김명자, 김형진 (2004).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관이 취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生活科學研究誌, 20, 63-85.
- 김미경 (2008). 대학생의 취업가능성 인지가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숙자 (1990).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사회과학논총, 5, 46-67.
- 김재갑, 김은미, 이선이, 최우영 (1998). 실업스트레스의 변화.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 노연희, 김명언, 장재윤, 김민수 (2004). 고용상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변화에 관한 종단 연구: 성취 프로그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7(1), 19-41.
- 노연희, 장재윤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미

- 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이 개인-직무 적합과 개인-조직 적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4), 23-44.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 (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유태용, 한태영, 황종오 (2005). 중·장년층 실직자의 실직에 따른 반응과 구직활동: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3), 375-404.
-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87-101.
-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 대학 4학년생의 구직 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5-165.
-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9.
- 최민식 (2007).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교과교육학연구, 11(2), 517-533.
- 한덕용,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93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 (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11-129.
- Ashforth, B. (2001). *Role transitions in organizational life: An identity-based perspective*. Hillsdale, NJ: Erlbaum.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tler, A., Hokanson, J., & Flynn, H. (1994). A comparison of self-esteem liability and low trait self-esteem as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66-177.
- Buunk, B. P., Collins, R. L., Taylor, S. E., VanYperen, N. W., & Dakof, G. A. (1990).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Either direction has its ups and dow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38-1249.
- Creed, P. A., & Macintyre, S. R. (2001). The relative effects of deprivation of the latent and manifest benefits of employment on the well-being of unemployed peopl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 324-331.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Culture, personality, and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5.
- Diener, E., Suh, E. M., Smith, H. L.,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7-32.
- Donovan, A., Oddy, M. (1982) Psychological aspects of unemployment: an investigation into the emoti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school

- leavers. *Journal of Adolescence* 5, pp.15-30
- Eisenberg, P.; Lazarsfeld, P. F. (1938)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Psychological Bulletin*, 35, 358-390.
- Feather, N. T. (1989). Reported changes in behaviour after job loss in a sample of older unemployed me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1, 175-185.
- Feather, N, & O'Brien, G. (1986).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n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 121-144.
- Fryer, D., & Payne, R. (1986). *Being Unemployed: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Unemployment*. In C. Cooper and I. Robertson (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London: John Wiley and Sons.
- Goldberg, D. P. (1972). *The Detection of Psychiatric Illness by Questionnai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er, S., Stocker, C., & Robinson, N. (1996). The perceived directionality of the link between approval and self worth: The liabilities of a looking glass self orientation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6, 285-308.
- Heidrich, S. M., & Ryff, C. D. (1993).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s processes i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8, 127-136.
- Heine, S. J., Kitayama, S., & Hamamura, T. (2007). Inclusion of additional studies yields different conclusions: Comment on Sedikides, Gaertner & Vevea (2005),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49-58.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olland, R. W., Roeder, U., van Baaren, R. B., Brandt, A., & Hannover, B. (2004). Don't stand so close to me: Self-construal and interpersonal closeness. *Psychological Science*, 15, 237-242.
- Inglehart, R., & Welzel, C.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son, P. R., Stafford, E. M., Banks, M. H., & Warr, P. B. (1983).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people: The moderating role of employment commit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525-535.
- Kernis, M., & Goldman, B. (2003). *Stability and variability in self-concept and self-esteem*.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106-127).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Kinicki, A. J. (1989). Predicting occupational role choices after involuntary job lo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204-218.
- Kinicki, A. J., Prussia, R. E., & McKee-Ryan, F. M. (2000). A panel study of coping with involuntary job lo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 90-100.

- Kim, Y., Cohen, D., & Au, W. (2010). The jury and abjuration of my peers: The self in face and dignity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904-916.
- Lu, L. & Gilmour, R. (2004). Culture and conceptions of happiness: Individual oriented and social oriented SWB.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 269-291.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1157.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tella, D., & Maass, A. (2000). Un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role of time structure and collectiv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095-1108.
- Mau, W. C. (2000). Cultural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365-378.
- McKee-Ryan, F. M., & Kinicki, A. J. (2002). Coping with job loss: A life-facet model.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7*, 1-29.
- McKee-Ryan, F. M., Song, Z., Wanberg, C. R., & Kinicki, A. J. (2005).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during unemployment: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53-76.
- Murphy, G. C., & Athanasou, J. A. (1999).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 83-99.
- Pajares, F., & Miller, M. D. (1994). Role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beliefs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 path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93-203.
- Prussia, G. E., Kinicki, A. J., & Bracker, J. S. (1993).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job loss: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using Weiner's (1985) attribution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382-39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M., Xun, W. Q. E., & Wilson, A. E. (2002). Language and the bicultural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040-1050.
- Sasaki, J. Y., & Kim, H. S. (2011). At the intersection of culture and religion: A cultural analysis of religion's implications for secondary control and social affil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402-414.
- Schmitt, D. P., & Allik, J. (2005).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53 nations: Exploring the universal and culture-specific fea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623-642.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heeran, P., & McCarthy, E. (1990). The impact of unemployment upon self-conception:

- Evaluation, affection, consistency and involvement dimensions. *Social Behavior*, 5, 351-359.
- Shweder, R., & Bourne, E., (1984).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pp. 158-1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pp. 290-312). In *Sociological Methodology* by S. Leinhardt (Eds.). San Francisco: Jossey-Ba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L.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 1321-1343.
- Tafarodi, R. W., Lo, C., Yamaguchi, S., Lee, W. W.-S., & Katsura, H. (2004). The inner self in three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97-117.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psychology.* In C. Bagley & G. Verma (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values: Cross-cultural perspective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pp.60-95). London: Macmillan.
- Twenge, J. M., & Crocker, J. (2002). Race and self-esteem: Meta-analyses comparing Whites, Blacks, Hispanics, Asians, and American Indians and comment on Gray-Little and Hafdahl (2000).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1-408.
- Uchida, Y., Norasakkunkit, V., & Kitayama, S. (2004). Cultural constructions of happines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 223-239.
- Vinokur, A., & Price, R. (1991). *Jobs II Survey.* ISR : Michigan.
- Vinokur, A. D., & Schul, Y. (2002). The web of coping resources and pathways to reemployment following a job los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 68-83.
- Vinokur, A. D., & van Ryn, M. (1993). Social support and undermin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independent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unemploy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50-359.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66-179.
- White, K.,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32-242.
- Warr, P. B., & Jackson, P. (1984). Men without jobs: Some correlates of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 77-85.
- Welzel, C., Inglehart, R., & Klingeman, H. D. (2003). The theory of human development: A cross-cultur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2, 341-379.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Winefield, A. H., & Tiggeman, M. (1985).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Effects, predisposing factors and sex differenc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8, 229-242.
- Wood, J. V., Taylor, S. E., & Lichtman, R. R. (1985). Social comparison in adjustment to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69-1183.

논문투고일 : 2012. 1. 06.

1차 심사일 : 2012. 1. 20.

게재확정일 : 2012. 2. 16.

The Effect of Collectivism on Anxiety Perception and Mental Health in Youth Unemployment

Minjung Cha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o Young Park

Graduate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Younhee Roh

Korea University
Brain-Based Psychology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collectivism on perceived youth unemployment anxiety as well as mental health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employment self-efficacy; self-esteem; and the frequency of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s. In Study 1, data were gathered from 179 university students in upper-ranking schools and middle-ranking schools in Seoul, Korea. Our results indicated that (a) collectiv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and also an significant predictor of perceived youth unemployment anxiety and mental health and (b) employment self-efficacy and self-esteem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perceived youth unemployment anxiety and mental health. In Study 2, data were gathered from 118 students in upper-ranking schools in Seoul, Korea. Our results indicated that (c) upward social comparison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perceived youth unemployment anxiety and mental health, while downward social comparison did not.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gener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employment seeking settings.

Key words : *collectivism, youth unemployment anxiety, employment self-efficacy, self-esteem,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